

세계 속 K뮤지컬 '우뚝'... 황금기 예약

2026년 공연계 전망

올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하며 확인된 'K공연'의 저력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뮤지컬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정부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국내 창작 뮤지컬계의 성장 모멘텀(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극장용 작품 제작이 늘고, 해외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극계에서는 고전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속속 무대에 오르고, 클래식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임윤찬과 조성진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확' 늘어난 뮤지컬 예산... 공연 활발
상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24년 만에 재공연된 앞둔 '몽유도원'이다. 동양적 정서와 회화성을 강조한 작품으로, 공연제작사 에이팝이 대극장용 공연으로 제작해 1월27일부터 2월22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선보인다.

'몽유도원'은 국내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다. 1997년 뮤지컬 '명성황후'를 선보인 뉴욕 링컨센터 데이비드 코크극장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다.

국내 최대 뮤지컬 공공단체인 서울시뮤지컬단도 세종문화회관에서 2편의 창작 뮤지컬을 선보인다. 정부의 뮤지컬 지원 확대 기조도 모처럼 일어난 창작 뮤지컬 '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정부의 뮤지컬 지원 예산은 244억 원으로 올해 31억 원보다 213억 원이 늘었다.

뮤지컬 업계는 중소극장 위주로 공연되는 국내 창작 뮤지컬의 대극장 공연이 늘어나고,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2의 어쩌면 해피엔딩'을 꿈꾸는 K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도 속속 가시화될 전망이다. '쇼맨_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가 미국 브로드웨이 진출을 앞뒀고,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다이어리'와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3편이 영국 웨스트엔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해외 대작 뮤지컬들도 한국 관객과의 만남을 앞뒀다.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이란 찬사를 받는 '발리 엘리엇'가 4~7월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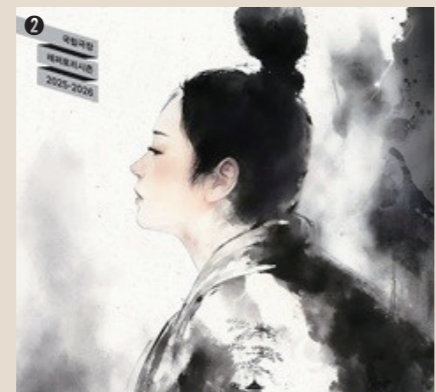


1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ending)'이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의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연출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브로드웨이 공연 모습. 2 뮤지컬 '몽유도원'. 1월27일부터 2월22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선보인다. 3 연극 '바나 삼촌' 한 장면. 4 피아니스트 임윤찬. 정명훈의 지휘로 진행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1월 내한 공연에 출연자로 나선다. NHN링크·에이팝·LG아트센터·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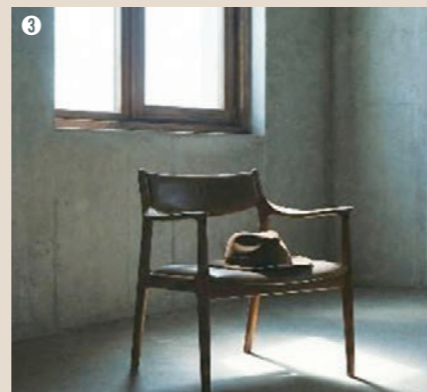
창작 뮤지컬 지원 31억→244억
24년 만에 재공연 몽유도원 화제
1~2월 국내 무대 끝나면 美로
해피엔딩·쇼맨도 해외로 진출
해외 대작도 줄줄이 韓 무대에

연극 '고전 재해석' 두드러질 듯
작품성·흥행 위주 무대 오를 듯
체호프·셰익스피어작 조강세
해외서 검증된 대작들도 몰려
佛 초연 '빅마더' 3~4월 공연

클래식 무대도 화려한 라인업
임윤찬, 연초부터 정명훈과 호흡
조성진, 해외투어 뒤 국내 신고
대작 오페라도 줄이어 선보여
발레 심청·카멜리아 대결 불만



울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에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무대화한 '프로즌'이 8월 서울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12월에는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 뮤지컬인 '오페라의 유령'과 대표적인 스티디셀



러 뮤지컬 '시카고'가 각각 블루스퀘어와 LG아트센터에서 펼쳐진다.

"고전은 영원하다"... 체호프·셰익스피어 재해석한 연극 '러시'



연극 분야에서는 '고전의 재해석'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작 작품들이 저조한 흥행 실적을 거두면서 작품성과 흥행력이 어느 정도 보장된 고전이 부각될 것이라는 관

측이다.

이미 국립극단과 LG아트센터가 안톤 체호프의 1899년 작 '바나 아저씨'를 번안한 '반야 아저씨'와 '바나 삼촌' 공연을 예고한 상태다. 권력의 허상과 사랑의 아픔을 통해 현대 사회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반야 아저씨'(5월22~31일)와 '바나 삼촌'(5월7~31일)은 상연 일정이 겹쳐 두 작품을 비교하며 관람하는 것도 의미 있다. 셰익스피어 동명 희곡을 토대로 제작한 국립극단의 '종일실 대로'도 5월28~31일 상연된다.

해외에서 작품성이 검증된 연극들도 국내 무대에 속속 오른다. 세종문화회관은 영국 햄스테드 극장과 공동으로 연극 '말벌'(THE WASP)을 3~4월 세종S씨어터에서 공연한다. 2023년 프랑스에서 초연해 호평받은 '빅 마더'도 3~4월 세종M씨어터에서 만날 수 있다.

임윤찬·조성진, 국내외 '숨 가쁜 일정'... 대작 오페라·발레 공연도

임윤찬은 새해 벽두부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 정명훈과 호흡을 맞춘다. 정명훈의 지휘로 진행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1월 내한 공연에 출연자로 나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 5월에는 서울과 대구에서 리사이틀을 열고, 6월에는 오스트리아 실내악단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모차르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국내 일정이 없을 때는 미국과 프랑스, 홍콩,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을 돌며 해외 팬들을 만난다.

'또 한 명의 피아노 천재'인 조성진도 국내외를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상반기 미국과 유럽 투어를 마친 뒤 5월 귀국해 뮌헨 필하모니 내한 공연에 출연자로 나선다.

대작 오페라와 발레 공연도 내년 공연계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서울시오페라단이 4월 성서 속 바빌로니아 왕국의 거대한 서사를 담은 작품인 '나부코'를 40년 만에 재공연한다. 국내 발레 단체의 '쌍두마차'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의 대작 경쟁도 관심사다. 유니버설발레단은 1986년 초연한 대표작 '심청'을 선보인다. 국립발레단은 11월 존 노이마이어의 대표작 '카멜리아 레이다'를 내놓는다. 연합뉴스

〈뉴진스〉 하니, 다시 어도어 품 다니엘은 계약 해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분쟁을 이 어온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어도어로 복귀한다.

또 다른 멤버 다니엘(사진)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멤버 이탈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29일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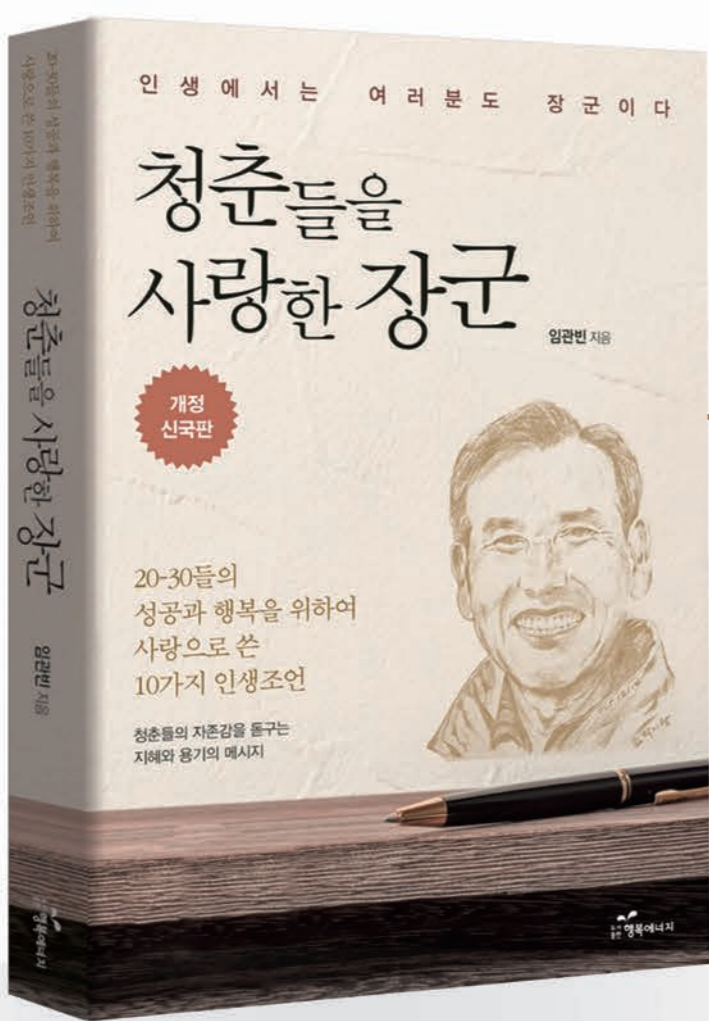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 멤버 해린과 해인은 지난달 소속사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어 하니와 민지, 다니엘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어도어는 현재 민지와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 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